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2. 1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2/3~2/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통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자 환율은 14.5원 급등 출발. 이어 멕시코 및 캐나다 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안도감에 하락 전환 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우려 속 낙폭을 축소
- 중반, 미-중 협상 기대감에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자 오름폭을 되돌리며 1,440원대로 하락
- 후반, 미-중 갈등 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 1,440원대 후반 보합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실업률이 4.0%로 하락하며 타이트한 노동시장 여건 지속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 급등 등의 영향에 따라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측면 등이 달러 강세 지지할 전망
- 여기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 강화 등도 달러 변동성 심화를 통해 원화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상기 원화 약세 요인 등으로 인해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될 수 있는 측면 속에 수출 업체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 등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6.0	1,472.5	1,443.9	1,447.8	-18.2

예상거래범위

1,450원 ~ 1,465원



유로·엔화 동향 (2/3~2/7)



유로화 동향

- 초반,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경계감 유입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EU가 조기 협상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강세 전환
- 중반, 예상을 하회한 미 서비스업 지표에 달려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강세 흐름을 유지
- 후반, 성장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ECB 보고서가 발표되자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트럼프의 EU 관세 부과 위협 발언에 경계감이 커지며 약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1.03달러대 마감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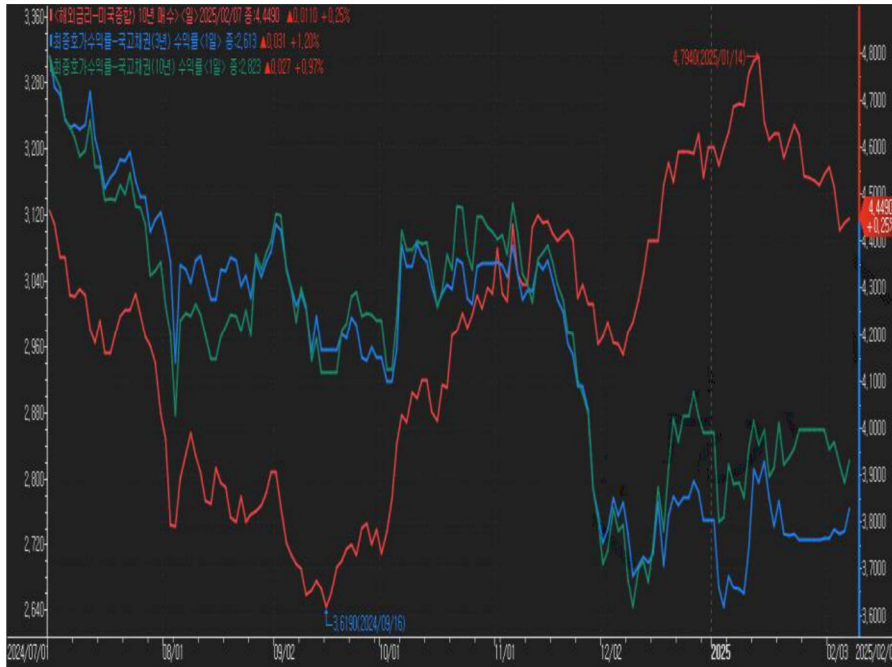
- 주초,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 속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일본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영향으로 추가 강세를 보임
- 중반, 일본 실질임금 상승세가 BOJ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한 가운데 큰 폭의 강세를 시현
- 후반, BOJ 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긴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강세 흐름이 지속. 이어 주 후반, 예상을 웃돈 가계지출 데이터에 BOJ 추가 인상 전망이 강화하면서 151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74	1.0442	1.0208	1.0328	-0.0046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5.1	155.9	150.9	151.3	-3.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3~2/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전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 서명 속에 3국의 즉각 반격 입장 표명 등으로 안전 선호 심리 강화되며 국고채 금리는 장기 구간 중심으로 하락 출발. 하지만 이어진 협상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하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른 영향 속에 미국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으로 선회하였고, 이에 대해 연준 주요 당국자의 금리 조정이 시급을 다투지 않는다는 매파적 발언 등으로 국내외 주요 금리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아시아 장에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영향에 연동하며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과 서비스업 지표 부진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 이어가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장 후반,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가 제한되는 형국 시현 후,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 움직임 나타내며 상승 흐름 속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함에 따라 시장 투자심리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 강화 등으로 크게 하락 출발. 이어 주요 국 관세 유예 소식에 전일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지만, 향후 반도체,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과 EU 등에 대한 관세 여파 전이 우려 등으로 시장 경계감이 높아진 국면 시현
- 중반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확대되며 투자심리 개선 속 코스피는 2,510선에 근접
- 후반 들어, 미국 서비스 지표 부진에 따른 10년물 미 국채 금리 하락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주 후반, 코스피가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실현 거래와 이어 발표될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 강화 속에 소폭 하락 마감